

재외동포의



07
2016



특집 _ 해외 한글학교 교장 교감 50여명, 모국서 역량강화 연수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와 차세대 잇는 소통창구”

화제 _ 박근혜 대통령, 에티오피아 국민 방문 한국전 참전 65주년 기념식에서 참전용사들 만나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

조선 시대 다양한 삶의 모습 그린 화보



1



2

조 선 시대의 대표적 화가인 김홍도(1745~?)의 면모는 '단원 풍속도첩' (檀園風俗圖帖, 보물 527호)이라 일컫는 그의 화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가로, 세로 30cm 정도의 종이에 그려진 그림은 '서당', '새참', '씨름', '무동', '타작', '우물가'를 비롯해 모두 스물다섯 점으로 이뤄졌다.

그림의 소재는 일상에서의 노동부터 노동 후의 휴식, 서민들의 놀이와 선비들의 고상한 취미생활까지, 주인공은 아기부터 노인, 서민부터 양반까지 다양하다. 그려진 소재와 대상이 다채롭고 생생하여 마치 조선 시대를 다녀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하나의 화첩에 모아 그린 예는 풍속화가 유행했던 조선 후기에서도 많지 않다.

그림은 소재가 그렇듯이 격식을 갖추지 않고 편안하게 그렸으며 배경을 생략하고 그리고자 하는 소재에만 집중하고 있다. 최소화된 묘사와 채색이라는 기법으로 덜 그리고 덜 칠함으로써 소재 자체를 돋보이게 했다.

다양한 소재만큼이나 화면을 구성한 방법, 즉 구도도 여러 가지

이다. 특히 눈에 띄는 구도는 '원형구도'이다. '무동', '서당', '씨름'은 원형의 구도로 그려진 그림으로 조선 시대 그림에서 둥글게 모여 앉은 사람들의 모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화면 전체가 원형구도를 이루고 있는 그림은 드물다.

이밖에 대각선 구도, 사다리꼴 구도 등 다양한 구도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배치했다. 이러한 다양한 구도는 주제에 따라 감상자의 시선을 화면의 중심으로 수렴하기도 하고 화면 밖으로 확산시키기도 하며 생동감 있는 화면을 만들어냈다.

아무 그림이나 하나 골라서 봐도 등장인물의 표정에서 기분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성격까지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등장인물들의 살아있는 듯한 표정과 행동으로 그림 속에 이야기를 배치해 놓아 감상자의 즐거움을 더해 준다. **창**

1.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 가운데 '서당', 조선 18세기, 39.6×26.7cm, 보물 527호

2. 단원풍속도첩 가운데 '무동', 화면 전체가 원형구도를 이루고 있다



- 02 한국의 얼**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
조선 시대 다양한 삶의 모습 그린 화보
- 04 특집** 해외 한글학교 교장 교감 50여명, 모국서 역량강화 연수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와 차세대 잇는 소통창구”
- 06 동포소식** 한인 단체, LA 경찰에 ‘한국 문화 알리기’ 적극 의
- 09 동포 캘린더** 월드옥타, 올해 1천550 명 차세대 무역인 배출 의
- 10 기획** 투자와 교역 증가로 몸집 커지는 베트남 한인사회
15만 교민 한인회 중심으로 축제, 봉사활동 펼쳐
- 12 화제** 박근혜 대통령, 에티오피아 국민 방문
한국전 참전 65주년 기념식에서 참전용사들 만나
- 13 지구촌통신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미국의 첫 한인촌 ‘파차파 캠프’
리버사이드 시 사적지로 지정
- 14 글로벌코리아** 올가을 제주 한상대회 대화장 맡은 오세영 회장
도쿄 한국상의 새 회장에 뉴커머 출신 장영식 씨
미국서 위안부 문제 알리는 한인 고교생 김예나 양
- 16 동포정책 Q&A** 재외동포와 민사소송 판결 확정, 강제집행
외국 법원 판결은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 별도로 받아야
- 17 우리말 배워봅시다**
- 18 한민족 공감** 한인 후손 1천119명 쿠바 곳곳에 거주
드라마 즐기고, 한복 입으며 한류 확산에 앞장
- 20 동포문학** 딸과의 수업시간
이병준 _ 캐나다 _ 2015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우수상
- 22 OKF 뉴스** 주철기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취임 의
- 24 고향의 맛·멋** 뭇생겨도 맛은 일품인 강화도 밴댕이
천대받던 신세에서 최고급 별미로 등극
- 26 재단 공지**

표지 이야기

한글학교 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글학교 교장 초청연수’가 6월 20일부터 4박 5일간 서울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우리말, 우리글이 다음 세대를 이어줍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23개국에서 한글학교를 이끄는 현직 교장과 교감 50여 명이 참가했다.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한글학교 교장 교감 50여명, 모국서 역량강화 연수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와 차세대 잇는 소통창구”



한글학교 교장 연수에는 미국, 뉴질랜드, 과테말라 등 23개국에서 한글학교를 이끄는 현직 교장과 교감 50여 명이 참가했다.

해외 한글학교 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글학교 교장 초청연수’가 6월 20일부터 4박 5일간 서울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연수에는 한글학교를 이끄는 현직 교장과 교감 50여 명이 참가했다.

재단이 한글학교 교장을 따로 초청해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말, 우리글이 다음 세대를 이어줍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글학교 경영자들이 평소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의식과 발전방안을 재외동포재단과 공유하면서, 한글교육을 기반으로 재외동포 뿌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 능력 제고·학교 간 정보 교환

참석자 중에 15년 이상 한글학교에 몸담은 이가 15명에 이른다. 미국, 뉴질랜드, 필리핀, 호주, 탄자니아, 캐나다, 조지아, 과테말라 등 23개국에서 왔다.

이들은 연수 기간에 학교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전문 능력을 배양하고, 전 세계 한글학교 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확대에 힘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20일 오전 서울에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방문으로 일정을 시

작한 이들은 견학 후 박물관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해외에서 우리 얼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같다”며 “교장 선생님 여러분은 모두 독립운동 사령관”이라고 격려했다.

개막식 후 이들은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했고 이어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동해 교장의 역할, 교직원 관리, 학교 운영 선진 사례 컨설팅 등 관련 직무 교육 일정을 소화했다.

21일에는 연수원 이람홀에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교장단의 간담회가 열렸다. 조 이사장은 “한글학교는 동포 차세대에게 자신의 뿌리를 확인시켜주는 소통창구이며, 현지에서 한국계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훌륭한 교육 기관”이라고 치켜세웠다.

참가자들은 한글학교 교사 연수와 교재,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표준화, 특성화 등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오후에는 재단의 재외동포 교육지원 사업 방향과 한글학교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는 현재 118개국 1천855개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비, 교사연수, 맞춤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지에서 출생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동포 자녀들이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테디코리안을 통해 한글, 다양한 우리 문화와 역사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연수 참가자들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재일 전 국립국어원장의 특강과 조규형 이사장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했고, 사물놀이·도자기 체험과 세종대왕릉 탐방에도 나섰다.

“정체성 교육 집중” 학교 운영 사례 공유

한글학교 운영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미국 벅스카운티한국학교 오정선미 교장, 멕시코 캄빠제한글학교 오성제 교장, 탄자니아한글학교 김태균 교장, 과테말라한국학교 이은덕 교장, 프랑스 리옹한글학교 서제희 교장이 학교 운영에 관한 노하우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은 한인 자녀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도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힘쓰는 교사들의 노력과 학교 운영



1

방침 등을 소개했다.

맞춤형 역사 문화 체험 학습법을 소개한 오정선미 교장은 “지난해 세종대왕과 독도를 알리는 학습에는 주변 한글학교 학생들도 초청해 12개 학교에서 500여 명이 참가했다”며 “참가학교마다 아이디어를 모아서 물시계, 독도 연필꽃이, 골든벨 울리기, 훈민정음 퍼즐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말의 유래와 역사를 배웠다”고 전했다.

오성제 교장은 “깜빠제한글학교에는 80여 명의 한인 후손들과 멕시코 청년들이 깜빠제 대학의 강의실을 빌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을 배웠는데 최근 장소를 옮기면서 학생 수가 줄었다”며 “안정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교사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라서 한국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전했다.

이은덕 교장은 발표에서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지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자유롭게 수업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연수 기간에 국내 한국어교육 관련 4대 학회와 재외동포재단이 한글학교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 단체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회장 이동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회장 육효창), 이중언어학회(회장 박석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회장 강현화)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선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리는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연수에서 초·중·고교반, 성인반과 연령별, 수준별 반을 담당해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수법을 끌어올리는 등 능력 제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한글학교가 동포사회의 기반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교사연수의 차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재외동포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뿌리 내릴 수 있었던 데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한글학교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조성에 재단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창**

1. 한글학교 교장 연수 참가자들이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세종대왕릉을 탐방했다.
2. 참가자들은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재일 전 국립국어원장의 특강을 들었다.
3. 도자기 체험에 참여한 한글학교 교장들.



2



3

한인 단체, LA 경찰에 '한국 문화 알리기' 적극

미국 한인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단체가 로스앤젤레스 경찰에 한국 문화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시선을 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24명의 경찰과 형사들은 6월 2일 한인 문화센터에 모여 전문 강사에게서 한국의 개관과 역사, 한국인의 습성과 문화적인 특성을 배우고 한국 음식도 맛봤다. 한인타운을 순찰하는 경찰과 한인 동포 사이의 언어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자 자원봉사 단체인 '굿월협력서비스'가 주축이 된 '한인문화체험'은 2008년부터 로스앤젤레스 경찰을 상대로 한국 문화 홍보를 시작했다. 봉사자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다리 노릇을 자임한 교사, 사회복지사, 정치인 보좌관, 경찰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됐다. 1천300명 이상의 경찰관이 교육을



미 LA 한인 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 문화 알리기' 프로그램에서 LA 경찰국 소속 경관이 한식을 체험하고 있다.

받았고, 최근엔 교육 대상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국과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도시 경찰서로 확대했다.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중 한 명인 재미 동포 제이슨 리(68) 씨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으로 많은 동포가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무기력한 동포사회의 냉정한 현주소를 목격했다"면서 "지역 지도자들이 한인 동포들에게 더 큰 관심을 두도록 로스앤젤레스 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경찰 교육 배경을 설명했다. 토니 가르시아 경관은 "심지어 가정 폭력에 희생당한 여성을 포함해 한인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다른 사람 일에 간여하지 않으려는 장면을 종종 봤다"면서 "한국 문화 교육이 한인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서 '재영한인 건강의 날' 행사

재영한인의사협회는 6월 4일 영국 런던 남쪽 레인즈파크역 한인종합회관에서 '재영한인 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한인을 대상으로 혈압·맥박·당·비만 등 병리 검사를 진행하고 대장암·유방암·자궁암·전립선암 등의 건강 검진 정보를 제공했다. 외과 전문의 박현미 회장의 '한국인의 암' 강연을 비롯해 여성 건강관리(이경진), 소아 건강과 응급치료(김지수), 관절 건강(하준수), 영국 정신 건강 제도(곽건), 치과서비스 이용 안내(홍보선), 무상의료제도(NHS) 건강 검진 및 이용(김차니, 강민규) 등 분야별 전문의 강의도 곁들였다.



재영한인의사협회(회장 박현미,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는 영국 내 한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인 양성을 돕고 있다.

해 2013년에 설립된 단체로, 현지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해 의료 혜택을 못 누리는 한인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박 회장은 "영국은 병원비 걱정이 없는 무상의료제인데도 고령으로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한인 1세대와 제도에 익숙지 않은 신장주자들은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며 "현지인과 달리 위암 발생 확률이 높은 한인을 위해 무료 위내시경 검진 등 NHS 이용법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50여 명의 현역 의사가 활동하는 재영한인의사협회는 후배를 위한 '의사 경력관리 콘퍼런스'와 한인 학부모와 고등학생 대상의 '의대 진학 상담회'를 매년 개최하면서 의료인 양성을 돕고 있다.

이 협회는 영국 내 한인 의사들의 정보 교류와 권익 증진을 위

재미동포 장혜복씨, 앨라배마 주에 ‘한국전 기념비’ 세워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에 거주하는 재미동포가 사재를 털어 한국전쟁 기념비를 건립했다. 몽고메리 시는 메모리얼 데이(5월 30일)를 맞아 27일 재미동포 장혜복(88)씨, 토드 스트레인지 시장,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인 찰스 칙 클리블랜드 예비역 공군 중장 등을 초청해 중심가 로자파크 인권박물관 앞 공원에서 한국전쟁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다. 장 씨는 이 기념비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 몽고메리 시에 기증했다. 몽고메리 시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공장이 있는 곳이다.



재미동포 장혜복 씨가 사재를 털어 제작한 한국전쟁 기념비를 5월 27일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에 기증했다. 오른쪽은 기념비 도안과 제작에 큰 도움을 준 크리스 디커트 씨.

기념비 앞쪽엔 ‘KOREAN WAR’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 전투 중인 미군의 그림이 부조로 새겨졌다. 한글로 ‘영원히 기억하리’라는 문구도 삽입됐다. 아울

러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구하라는 나라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한다’는 문장도 보인다. 뒤쪽엔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의 수와 사망자, 연합군을 형성한 국가 등을 새겼다.

장 씨는 “세계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부강한 나라가 됐다”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도 중요하고, 한국 사람이 도움받은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남기고 싶어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 약 3만7천 명이 사망했다. 이 중 700여 명이 앨라배마 주 출신이고, 31명이 몽고메리 태생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인 이철훈 씨, 10년째 라마단 금식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을 이틀 앞둔 6월 4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60km 거리에 있는 보고르 시(市)의 한 공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공장의 유일한 한국인이자 보고르 한인회장인 종이박스 제조업체 ‘인도박스’ 대표이사 이철훈(56) 씨가 올해도 직원 215명과 함께 한 달간 금식한다는 말에 직원들이 환호성을 터뜨린 것이다. 1994년 공장 문을 연 이 씨는 올해로 10년째 라마단 금식을 하고 있다.



10년째 라마단 때마다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들과 함께 한 달간 금식해 온 이철훈 대표.

인도네시아 인구 대다수는 이슬람을 믿는다. 이 회사 직원들도 이 대표를 제외한 전원이 이슬람교도로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음식은 물론 물조차 입에 대지 않는 금식에 들어갔다. 이슬람교도도 아닌 그가 라마단에 동참한 계기

는 이를 통해 직원들과 진정 한마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국적과 종교를 넘어) 회사 구성원이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금식을 시작했다”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년 이맘때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서 17년간 일했다는 유니(39·여) 씨는 “처음 금식을 하겠다고 할 때는 예의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로도 계속하고 있다. 주변에 이렇게 하는 분이 없다”면서 “우리 문화를 존중해 준다고 느껴져 기쁘고 그것이 회사의 발전 요소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이런 노력 덕분인지 가족들까지 나서서 문제를 함께 풀아가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대지진 계기로 뚝뚝 뭉친 네팔 한인들

네팔에 사는 한국인은 800명 남짓으로 대부분 수도 카트만두에 모여 산다. 이 가운데 80%가 선교사와 NGO 단체 관계자들이고 나머지 20%는 여행,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순수 이주민이다. 네팔에 들어온 목적이 제각각이다 보니 그동안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았다. 모래알 같았던 네팔 한인사회가 하나로 결속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4월 발생한 대지진이었다.

임종범 한인회장은 5월 27일 “지진 직후 합동재해대책본부를 만들고 단체 SNS로 긴밀하게 소식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소통하는 한인회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선교사, NGO 단체 관계자, 여행,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순수 이주민 등 세 부류의 한인들이 한데 뭉치자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지진 직후 모든 한인이 참여하는 재해대책본부가 결성됐다. 쏟아져 들어오는 구호



지난해 4월 네팔 대지진 후 의료봉사에 나선 네팔 한인회.

물자를 적재적소에 보내는 데는 선교사 단체가 힘을 쏟았다. 오지 등에 들어가 지역민과 밀착해 생활해온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한 것이다.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니라 재활과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은 NGO 단체들이 주도했고 전체적인 조정은 한인회가 나섰다.

긴급 구호가 끝나자 한인회는 현지인 의사회와 함께 30여 명의 봉사팀을 구성해

이재민 캠프를 찾아다니는 의료봉사에 나섰다. 임 회장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욱 뭉치게 됐죠. 더불어 살자며 현지인을 돕자고 나섰는데 다들 요즘이 제일 행복하네요”라고 말했다. 한인회는 6월 1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지진 피해가 심했던 랑탕 지역의 이재민 캠프를 방문해 주민들을 진료하고 의약품을 나눠줬다.

이민 반세기 호주 한인사회 ‘정치참여’ 적극

이민 반세기를 맞은 호주의 한인들이 현지 주류 정치의 참여 폭을 넓히고 있다. 집권 자유당을 지지하는 한인들은 6월 22일 시드니 내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의회에서 ‘호주 자유당 한인연합회’를 결성했다. 한인들은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인사회는 물론 호주 다문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으며 옥상두 스트

라스필드 카운슬(Council) 시장, 양상수 오번 카운슬 전 의원, 김기덕 전 시드니 한인회 부회장 등 3명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자유당 당원들과 시드니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10여 명의 NSW주 자유당 주요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연합회 출범의 산파역을 한 김기덕 공동대표는 “이스라엘과 인도, 중국, 네팔 출신 이민사회가 이미 자유당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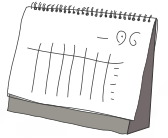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에서 열린 ‘호주 자유당 한인연합회’ 결성식.

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한인들의 정치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한인사회에서는 이번 연방 선거에도 5명이 출마했다.

옥상두 시장은 자유당의 NSW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9번을 받았다. 이들 후보 중 6번까지 당선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은 쉽지 않다. 옥 시장은 그러나 후보별 선호투표에서 자신에게 1번을 많이 찍어줄 경우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며 한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소수민족 출신자들을 겨냥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 수도 준주(ACT)에서 기독교 민주당 상원 후보로 출마하는 데이비드 김 등 군소정당 후보로 4명이 나서고 있다. **▶**



월드옥타, 올해 1천550 명 차세대 무역인 배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올해 '차세대 무역스쿨'을 통해 1천550 명의 무역인을 배출한다. 전 세계 70개국 140개 도시에 지회를 둔 최대 규모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월드옥타는 6~9월 세계 20개 도시에서 차세대 무역스쿨을 진행한다. 이 무역스쿨은 재외동포 차세대 경제인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전개하는 월드옥타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1만 7천여 명을 발굴, 육성했다.



아프리카·중동한상연합회, 두바이서 발대식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한상(韓商)의 중심점 역할을 위해 지난 2월 결성된 아프리카·중동한상연합회가 6월 12일 두바이의 아시아호텔에서 공식 발대식을 했다. 김정배 회장은 "한인상공인들의 상생발전을 위해 설립한 아중동한상연합회의 정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대식을 열었다"며 "이번에 마련한 정관과 사업계획은 오는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총회를 열어 확정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토론토 시의원, 온타리오 주 의원 선거 출마

1991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 시의원에 당선한 이래 내리 8선을 기록한 관록의 조성준(레이먼드 조·80) 시의원이 온타리오 주 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조 시의원은 6월 4일 스카버러-루즈 리버 선거구의 보수당 주 의원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 선거구는 바스 발키순(자유당) 주 의원의 사퇴로, 아직 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9월경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조 후보는 "바뀌어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미 한국어교육재단 한국홍보 활발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한글학교 교사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 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구은희)은 현지에서 세계 최고 금속활자 본인 '직지심체요절'(직지를 알리고, 현지인들과 김치를 담그는 등 활발한 한국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단은 6월 11일 산타클라라에 있는 은혜와평강교회에서 현지인과 입양한인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제5회 아이 러브 김치' 행사를 진행했다. 6월 2~4일에는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지 복원 시연 등 직지 워크숍을 열었다.



신임 재독한인총연합회 박선유 회장

독일 전역 37개 지역한인회와 3개 회원단체를 아우르는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에 박선유(66) 프랑크푸르트한인회장이 뽑혔다. 박 회장은 5월 말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보트로프에서 열린 2016 재독총연 정기총회에서 단독 출마,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제34대 회장에 선출됐다. 박 회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재독한인 동포사회를 이끌어 온 세대는 이제 고령화돼 재독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 동력이 필요하다"고 차세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한국 고교생 초청해 리더십 캠프

미국의 한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차기 회장 유재훈)는 8월 8~13일 텍사스 주 달러스에서 개최하는 '2016 한미과학기술축대회'에 한국 고교생 30여 명을 초청해 '청소년과학기술리더십캠프'를 연다. 참가 고교생은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브루스 보이틀러 박사 등 과학계 석학과 만나 생생한 조언을 듣는다. 이어 주요 연구소와 실험실 견학, 선배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심포지엄 참관, 과학 연구 실습도 가진다.



투자과 교역 증가로 몸집 커지는 베트남 한인사회 15만 교민 한인회 중심으로 축제, 봉사활동 펼쳐



1. 제회 '하노이 한·베 축제'가 2015년 4월 11일 하노이 편용아 광장에서 하노이한인회와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공동 주최로 열려 K팝 공연,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2. 4월 16일 실시한 제회 호찌민 한인회장배 독도사랑 사생대회 및 백일장 모습.
3. 호찌민한인회가 2014년 6월 25일 베트남 불우이웃 돕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 땅에 처음 이주한 한인은 평안북도 신의주 출신인 전성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925년 중국으로 망명하는 독립군의 길 안내 역할을 하다가 구속 수감된 그는 출감 이후 중국을 거쳐 홍콩으로 들어가 몇 년 지낸 후 1932년부터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서 거주하게 됐다. 1937년 하이퐁에는 전성화 가족을 비롯해 3세대가 살았으며, 무역업이나 인삼장사를 했다. 베트남 남부의 사이공(현 호찌민)에도 인삼을 거래하는 한인이 일찍이 진출한 것으로 추측되며 최초로 이주가 확인된 한인은 무역업을 하던 김상률이다. 일본이 패전하기 전 하노이에 100여 명, 호찌민에 2천 명의 한인이 있었으나 일본 패전 후 급격히 줄어 1950년대에는 36명, 1962년에는 42명의 한인이 주로 호찌민 지역에 잔류했다. 베트남 한인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면서부터였다. 1966년 42세대 164명의 한인이 대부분 호찌민에 거주했고 미군 군무원, 납품업자, 식당 및 식품업, 무역업 등에 종사했다. 이들은 현재 베트남 한인의 1세대로 '원로'라 불리고 있다. 1965년 전쟁 와중에서 호찌민한인회가 발족했다. 한인의 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냉전이 붕괴하고 한국과 베트남이 다시 국교를 정상화한 1992년 12월부터이다. 대우, 포스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을 비롯해 신발, 섬유, 의류 업종의 중소기업자들이 진출하면서 호찌민에 상사주재원 등 2천여 명의 한인이 있었다. 이들의 사업 성공으로 추가 진출이 이뤄져 1996년 호찌민에 거주하는 한인이 5천 명을 넘어섰다. IMF 사태로 대기업의 투자는 감소했

지만, 호찌민의 경우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투자가 꾸준히 늘어났고 식당, 여행, 숙박업 등 일부 자영업자 숫자도 함께 증가했다. 베트남 교민은 특히 2003년부터 시작된 제2차 베트남 투자붐을 타고 급격히 늘었다.

하노이와 호찌민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거주 한인 규모는 남부(호찌민시) 10만, 북부(하노이시) 5만 명으로 15만 명 규모이다. 외교부 집계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0만8천850명인 것과 비교하면 베트남 거주 한인의 가파른 증가세를 읽을 수 있다. 하노이는 수교 당시 교민이 100여 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만여 명에 달한다.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은 4천500여 개로 베트남 투자 1위 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 준다. 하노이한인회는 대기업 지사장이나 법인장이 중심이 되어 태동, 현재 고상구 씨가 10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호찌민한인회는 1981년 활동을 중지했다가 1996년 재출범해 현재는 13대 김규 회장이 한인회를 대표하고 있다. 하노이한인회는 작년에 세계한인회장 대회 참석자 투표를 통해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와 함께 최우수 한인 회로 선정됐다. 교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펼친 모범사례로 뽑혔으며 특히 '119 긴급 콜센터'를 설치해 교민 안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24시간 운영되는 '119 콜센터'는 불의의 교통사고나 위급한 상황으로 병원에 가야 할 때 긴급 호송을 지원하고 현지 병원에서의 통역과 입원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대사관 영사부 민원실 자원봉사 지원과 교민을 위한 20여 개의 문화강좌 개설, 한인 도서관 운영, 베트남 불우이웃돕기 등의 공익적인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작년 4월 11일에는 '제1회 하노이 한·베축제'가 하노이한인회와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주최로 하노이 편우아 광장에서 개최되어 다문화 시대를 맞아 양국 간 우정을 다지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 축제행사에는 6만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한국인들이 해외 생활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자녀 교육도 베트남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2000년만 해도 하노이에는 한국학교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호찌민과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 각각 1천300명, 1천 명의 학생이 있다. 학교 설립과정에서 현지 진출 기업의 기부금과 한인의 찬조가 밑바탕이 되어 자녀 교육에 대한 한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하노이한인회는 '교민카드 발행'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교민 정보 수집을 통해 바이러스,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위기에 대처하는 한편 위급 상황 시 여권 없이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카드가 맹점을 통한 할인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찌민한인회는 교민이 사고사를 당했을 때 한국식으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 한국에서 급보를 받고 달려오는 가족 친지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다.

베트남 얘기를 하면서 '한류'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된 한류는 처음 베트남에서 출발했다. 1997년 한국드라마 '느낌'과 '금잔화'가 호찌민 TV에 첫 방영 됨으로써 한국드라마가 베트남에 소개됐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베트남은 한류의 진원지로 여전히 친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한류 열풍은 최고조를 지나 조금 시들해지는 상황이다. 2년 전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베트남 전체 TV 방영 드라마 가운데 한국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정도였고 K-POP은 60만 명의 팬클럽을 가질 만큼 열풍을 불러일으켰으나 최근 들어 중국이나 일본의 드라마와 음악이 늘고 있다고 현지 동포들은 전한다. 호찌민한인회 김규 회장은 "한국 정부에서 한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보급이나 한국 문화, 한식 보급을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현지인들에게 체험할 기회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창]**



4. 2013년 9월 10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찌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동포와의 만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5. 4.13 총선에 앞서 하노이 한인들이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영사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모습.
6. 하노이한인회가 2015년 4월 4일 '열린 의사회'와 함께 의료봉사에 나섰다.
7. 1966년 베트남 봉따우 운동장에서 태권도를 시범 보이는 한국 태권도 사절단 모습.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사진.



박근혜 대통령, 에티오피아 국민 방문 한국전 참전 65주년 기념식에서 참전용사들 만나



1



2



3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5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국과 프랑스 국민 방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 166개사, 169명의 경제사절단이 참여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전에 지상군을 파견한 유일한 나라인 에티오피아를 5월 27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65주년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몰라투 테쇼메 대통령, 멜레세 참전용사회장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 회화하고 묵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65년 전 한국전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강뉴(Kangew) 부대 소속 생존용사들과 유가족 150명을 비롯해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 장병과 교민 등 모두 250명이 함께 했다. 에티오피아가 한국에 지상군을 파견할 당시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황실근위대 소속 지원병 중심으로 파병부대를 결성한 뒤 부대 명칭을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격파하라’는 의미의 ‘강뉴’로 명명했다.

셀라시에 황제는 “한반도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고 당부했고, 강뉴 부대는 화천, 철원, 김화 등 주로 최전방 산악지대에 배치돼 200회 이상의 전투에서 대부분 승리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 종료 후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일일이 대화를 나눴고, 일부 참전용사들은 박 대통령에게 큰 절 형식으로 인사했다.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해주셨다”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의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주고 계신 참전용사 여러분을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멜레세 회장은 “65년이 지난 뒤 참전용사로서 한국이 다시 발전한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저의 희생이 값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며 “박 대통령 아버지께서 경제부흥을 위해 노력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멜레세 회장은 1968년 셀라시에 황제의 방한 때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액자를 박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셀라시에 황제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아프리카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국민 방한했으며, 두 정상은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8일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처음 선보인 코리아에이드는 모두 10대의 차량이 수혜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등 진료서비스와 함께 한식·현지식 등을 제공하고 보건 교육과 K팝 등 한국문화 동영상도 상영하는 새로운 형식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다. **[장]**

-
1.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7일 아디스아바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제65주년 한국전 참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 왼쪽 두 번째는 몰라투 테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
 2.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3.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6일 에티오피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미국의 첫 한인촌 ‘파차파 캠프’ 리버사이드 시 사적지로 지정

김중우 |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도산 안창호(1878~1938) 선생이 190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에 세운 최초의 한인촌인 ‘파차파 캠프’(Pachappa Camp)가 사적지(Historic Site)로 지정된다. 리버사이드 시 문화위원회는 6월 15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도산 선생이 건립한 파차파 캠프를 사적지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흥명기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총회장과 장태한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소장 등 한인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리버사이드 시의회는 7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적지 지정을 최종 승인하고, 8월 15일 파차파 캠프가 건립된 장소에서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장태한 소장은 “파차파 캠프 부지를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리버사이드 시청에 신청했다”면서 “현재 땅 소유자는 가스회사 등 2곳으로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장 소장은 “이번 파차파 캠프 사적지 지정은 미국에서 최초의 한인촌이 리버사이드에서 건립됐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소장은 파차파 캠프 사적지 지정을 위해 리버사이드 시에 자신이 작성한 ‘파차파 캠프: 미국 첫 한인촌’ 논문과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그는 논문을 준비하면서 1902년 12월 7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에 게재된 도산 선생의 인터뷰 기사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리버사이드

시 다운타운에 있던 파차파 캠프는 당시 한인 10여 가족 50여 명이 거주한 판자촌이었다. 장 소장은 “1902년 부인 이해련 여사와 함께 미국에 건너온 도산 선생은 190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 동부 리버사이드로 이주한다”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소장에 따르면 리버사이드에서는 오렌지 농업이 성해 한인들이 인부로 많이 고용됐다. 도산은 이곳에서 한인공동체인 파차파 캠프를 조성했다. 1911년 파차파 캠프를 방문한 강명화 대한인 국민회 북미지방 총회장은 이곳을 ‘도산공화국’이라고 불렀다. 장 소장은 “도산 선생은 이곳에서 신민회와 흥사단 조직을 구상했다”며 “미국 내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바로 리버사이드인 셈”이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또 “도산 선생이 행동하는 지도자였음을 보여주기 위해 8월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 있는 도산 기념 동상을 오렌지를 수확하는 모습으로 재단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

1.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시는 도산 선생이 건립한 한인촌을 ‘사적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 2, 3. 도산 안창호 선생이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던 당시 모습.(출처: USC 동아시아 디지털 라이브러리)
4. 신민회 조직 등 독립운동을 펼치고 1911년 4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온 안창호 선생을 리버사이드 한인들이 환영하기 위해 모였다.(출처: USC 동아시아 디지털 라이브러리)

올가을 제주 한상대회 대회장 맡은 **오세영** 회장

라오스 진출 19년 만에 12개 계열사 둔 코라오 그룹 일궈



오세영(53) 회장은 1997년 라오스에 진출해 19년 만에 12개 계열사를 거느린 코라오(코리아+라오스의 합성어) 그룹을 일궈냈다. 그는 “미얀마와 중국, 베트남 진출로 그룹의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2년 안에 연 매출 1조 원을 올리는 그룹을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코라오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중심의 제조와 판매를 주축으로 하면서 유통·건설·레저·바이오에너지·은행 등의 분야에 다양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코라오는 ‘라오스의 국민 기업’으로 성장했고, 오 회장은 현지에서 ‘자동차 왕’으로 불린다. 2010년 그룹의 지주사인 ‘코라오 홀딩스’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자회사인 KR모터스가 지난 4월 중국 ‘칭치오토바이’와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 1일

부터 가동에 들어가면 2018년부터는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KR모터스는 지난해 총 2만 5천여 대의 오토바이를 팔아 83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오 회장은 “중국의 새 공장에서는 30만대를 생산하고, 이를 전 세계 60여 개국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6개국에 판매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코라오가 2013년부터 반제품조립(CKD) 방식으로 생산하는 독자 상용차 브랜드 ‘대한’의 성장도 그가 1조 원의 목표를 이룬 시일 안에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배경이다. ‘대한’은 지난해에만 판매액이 1천400억 원에 달했다. 라오스, 베트남, 파키스탄에서 갈수록 인기여서 연 10% 이상 성장은 무난하다는 것이 오 회장의 설명이다.

오 회장의 도전과 성공을 눈여겨본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과 주요 CEO들은 그를 오는 9월 27일부터 시작한 제주도 중문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뽑았다.

도쿄 한국상의 새 회장에 뉴커머 출신 **장영식** 씨

“경색된 한일관계 회복에 힘 보탬 것”

재일동포의 대표 경제인 단체 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소속 도쿄 한국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뉴커머(newcomer, 신정주자) 출신인 장영식(사진 왼쪽)에 이산 대표가 선출됐다. 5월 10일 도쿄 미나토구 소재 한국중앙회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2년 임기의 12대 회장으로 오른 장 대표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재일동포사회에서 뉴커머 출신이 상의 단체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라며 “올드커머(구정주자) 중심의 상의가 뉴커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단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

적 사례라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개인사업가와 법인 등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도쿄 한국상공회의소는 재일동포 상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회장은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장 회장은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등 일본 내 17개 지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며 연간 2억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에이산을 이끌고 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특히 1980



년대 초반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재일 동포를 지칭하는 이른바 뉴커머 출신 가운데 가장 성공한 기업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부회장인 그는 “지난 7년간 상의를 이끌었던 김광일 전 회장 때부터 뉴커머 기업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임기 내 신·구 정주자간 화합과 상공회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올드커머가 중심인 상의는 현지화 및 일본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강점이지만 해외 경제인과의 교류가 빈약했다”며 “월드옥타 등 해외 동포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7년

전 도쿄 한국상회에 가입해 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회장에 오른 장 회장은 “최근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고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끊임없이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며 “양국 사정을 잘 아는 재일동포 기업인들이 뭉친 상의가 앞장서서 친선관계 회복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서 위안부 문제 알리는 한인 고교생 김예나 양

‘나비 클럽’ 결성해 위안부 소재 영화, 그림책, 강의 활동

미국 보스턴 뉴턴사우스 고교에 다니는 김예나 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나비(Nabi) 클럽’을 결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한 한인 1.5세인 김 양은 한국의 고3에 해당하는 12학년 재학 중으로 2년 전 뜻을 같이하는 한인과 미국인 학생들을 규합해 ‘나비클럽’을 결성, 회장을 맡고 있다. ‘나비’는 일본군에 희생된 위안부들의 상징 생물로,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통과 폭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는 의미가 있다.

‘나비’ 클럽 회원은 모두 13명에 지도교사는 김 양의 영어 교사인 미국인 마리케이트 캐스퍼 씨로, 학생들의 열정에 감동해 자청했다고 한다. 이 클럽은 5월 27일 교내 강당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귀향’ 상영회를 열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영화 관람 후 위안부 문제가 인권에 관한 인류의 보편적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양은 “영화 상영을 홍보할 때 우리 멤버 중 한 명이 일본인 학생에게서 항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그 일본인 학생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올드 레이디스’(Old Ladies)라

부르며, ‘왜 그 사람들은 닥치지 않느냐’는 막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일을 당하면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더 뼈저리게 느꼈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일어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

다”며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양은 활동 시작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일러스트 북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버드대, 뉴베리스트리트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일러스트 북을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I AM the EVIDENCE)라는 제목의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강의도 학교에서 꾸준히 열고 있다. 초반에는 강사를 초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기관과 독지가, 재능기부자들의 도움으로 특강도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김 양은 전했다. **장**



재외동포와 민사소송 판결 확정, 강제집행 외국 법원 판결은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 별도로 받아야



법정 모습

민사소송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 전 판결 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원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집행권원에 “위 정보는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 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이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제1심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준다. 강제집행은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동산 압류는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긴다. 또한, 금전채권의 경우 법원은 압류명령을 내려 “제3 채무자인 은행은 채무자

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제3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해야 한다. 압류 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철회할 수 있고 따로 타협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이에 따라 분배·지급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지급하게 된다.

외국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 집행할 경우 예컨대 판결문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등을 하려면 국내 법원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집행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외국 법원 판결 가운데 요건이 모두 구비된 판결 중 한국법원이 그 적법함을 집행판결로 선고한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때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피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의 재산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

Q&A

▶ 국내 법원에서 외국 법원 민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한 집행판결을 받으려면?

한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패소한 피고가 한국민인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혹은 송달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하여 응소했어야 한다. 또한, 외국 법원의 판결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상호보증에 있어야 한다.

바른 말 고운 말

미주알고주알 “며칠 전에 선봤는데 무슨 남자가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미주알고주알 캐문는데 나중에는 짜증이 다 나더라.”

이처럼 아주 사소한 일까지 따지면서 이것저것 속속들이 캐어 묻는다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야기하는 모양을 가리켜서 ‘미주알고주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주알’은 무엇이고 ‘고주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미주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창자 끝 부분을 가리키고, ‘고주알’이라는 것은 별 뜻 없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덧붙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사람 속의 처음부터 맨 끝 부분까지 속속들이 훑어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도 자세하게 묻거나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서 ‘미주알고주알’처럼 앞의 말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덧붙여 말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아롱다롱’에서 ‘다롱’이라는 말도 아무 뜻 없이 ‘아롱’이라는 앞의 말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덧붙인 것입니다.

갓~ / 돌~ 우리말에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의 앞에 붙어서 뜻을 첨가해 하나의 다른 단어를 이루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서른’이라는 말은 ‘서른’이라는 말 앞에 ‘갓~’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것으로 여기서 ‘갓~’이라는 말은 수를 나타내는 수사 앞서 붙어서 ‘이제 막’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갓서른’이라는 말은 이제 막 서른이 된 나이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의 이름 앞에 ‘돌’이라는 말을 붙여서 ‘돌배’라든가 ‘돌감’ 또는 ‘돌미나리’라고도 부르는데 ‘돌~’이라는 접두사는 품질이 낮은 것이나 저질로 난 야생종을 나타냅니다. ‘돌미나리’를 돌밭에서 나는 미나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야생종의 미나리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것 중에 ‘돌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닷물 속의 돌에 붙어서 자란 김을 뜻하는 것으로 ‘돌배’나 ‘돌감’의 ‘돌’과는 뜻이 다릅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오른쪽 방향 열쇠

2.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붉은 참빛 모양으로 여러 갈래로 잘게 나뉘어 있다
4.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
5.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며 쓴 글
9. 두 사람이 맞서 격투를 벌여 승패를 가리는 경기.

- 유도, 씨름, 권투, 레슬링 등이 있다
12. 체면에 어그러지는 난폭한 짓을 버릇없이 함. 또는 그런 언행
13. 말을 기르는 곳
14. 차를 타기 위해 찾았을 주고 사는 표
16. 전선이나 통신선을 늘어 매기 위해 세운 기둥
19. 대나무의 땅속줄기에서 돋아나는 어린싹. 식용한다
21. 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
23. 전쟁에서 사로잡은 적

▶ 아래쪽 방향 열쇠

1. 곡식이나 소금 등을 담기 위해 짚으로 짜서 만든 것을 뜻한다
2. 시집갈 나이의 여자를 이르는 말
3. 태양에서 여섯째로 가까운 행성. 태양계의 행성 가운데 둘째로 큰 행성으로, 둘레에 아름다운 큰 고리 같은 테가 있다
6. 다른 사람이 잘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등을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7. 소방 장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차
8. 예금을 받아 그 돈을 자금으로 해 대출, 어음 거래, 증권, 인수 등을 업무로 하는 금융 기관

10. 사람으로 말을 만들어 겨루는 경기. 두세 사람이 앞에 선 사람의 어깨에 팔을 걸어 말을 만들고, 거기에 한 사람이 올라타서 다른 말을 탄 사람과 겨뤄 쓰러뜨리거나 모자를 빼앗는 놀이
11. 화장실을 이르는 말
15. 나라와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신하
16.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줘 이익을 취하는 곳
17. 시골 길가에서 밥과 술을 팔고, 돈을 받고 나그네를 묵게 하는 집
18.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20.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
22. 선형이나 업적에 대하여 격려하기 위해 주는 돈

▶ 6월호 정답

폐	누	냉수		장
가	랑	이	원	시인
		철	웅성	금
시	모	근	경	로석
루	양	노		논
	노	새	린	귀마개
	안	안	내	문라
망	망		풍	도벽
신	기	루	편지	안

한인 후손 1천119명 쿠바 곳곳에 거주 드라마 즐기고, 한복 입으며 한류 확산에 앞장



1. 한국 외교 수장으로는 최초로 미수교국 쿠바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월 5일 아바나의 한인후손회관을 찾아 안토니오 김 쿠바 한인후손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 쿠바에 한류 붐을 지핀 탤런트 윤상현이 2013년 11월 4일 엑스포쿠바 전시장 한국관 앞에서 여성 팬에게 사인을 해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3. 쿠바의 한국문화클럽 회원들이 올해 3월 클럽 1주년 기념행사로 아바나 시내의 한 광장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 춤을 추고 있다.
4. 아바나에서 2015년 2월 12일 부터 개최된 국제도서전에 마련된 한국 부스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21년 한인들이 처음으로 쿠바 섬에 발을 내디뎠고 그로부터 95년이 지난 2016년 한국의 외교 수장이 처음으로 쿠바를 찾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월 5일 쿠바 아바나의 한인후손회관을 방문했다. 윤 장관은 전날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는 최초로 쿠바에 도착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다음 한인 후손들의 자취를 찾았다. 한인후손회관은 일요일이면 보통 한인 후손 자녀를 비롯해 쿠바인 한류 팬들이 모여 춤을 추거나 한국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곤 하지만 이날은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느라 분주한 모습이 었다.

한인후손회 안토니오 김(73) 회장은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웃었다. 김 회장은 경상북도 출신의 평범한 농민으로 기억하는 그의 할아버지가 멕시코로 이주하면서 쿠바 한인의 삶을 살게 된 인물이다. 윤 장관 일행이 도착하자 반갑게 맞이한 김 회장은 회관 구석구석을 안내했다. 한복, 팽과리, 북 등이 전시된 메인 홀을 지나 쿠바의 독립 영웅으로 추앙받는 시인 호세 마르티의 사진과 쿠바 국기가 걸린 방에서 김 회장은 쿠바인답게 마르티의 행적을 설명했다. 조선의 독립운동에 힘을 보탤던 독립 유공자 고(故) 임천택 옹 등 쿠바 한인 1세대와 그 가족들의 사진이 전시된 방에선 한국인의 후손으로 돌아가 쿠바의 한인 역사를 간략히 전했다.

한인후손회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 등의 후원으로 2014년 8월 문을 열었다. 쿠바 한인 사회는 1905년 멕시코 유카탄으로 이주했던 한인 중 일부가 쿠바로 건너오면서 처음 뿌리를 내렸다. 김 회장은 “당시 ‘멕시코 한인 중 누군가가 쿠바에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아 일부가 쿠바로 이주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처음에 300여 명이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했으며 지금은 총 1천 119명의 한인 후손들이 쿠바 각지에 거주하고 있다.

쿠바에 부는 한류 열풍은 아바나 구시가지의 10평 남짓한 아파트에 있는 ‘한국





문화클럽'에서 읽을 수 있다. 쿠바 국기와 태극기가 그려진 현관으로 들어서면 배우 이민호·윤상현 등 한국 스타들의 사진과 드라마 '태양의 후예' 포스터 등이 벽을 한가득 채우고 있다. 이곳에서 클럽 회원들은 함께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고 다운로드받은 드라마를 서로 교환한다. K팝 음악을 듣고 춤을 추거나 태권도를 배우기도 한다. 지난해 4월 결성된 한국문화클럽은 1천300명가량의 등록 회원을 두고 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정기 모임에는 200~300명이 참석한다. 최고령 회원이 80세에 이를 정도로 회원 연령대도 다양하다.

여대생 에스피노사 씨는 취재진에게 “한국 사람들은 흥미로운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연기력도 좋다”며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열정적으로 피력했다. 한국과 쿠바는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정치적 교류를 단절했지만, 한류는 이미 쿠바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쿠바 국영방송인 '카날 아바나'가 2013년 2월부터 한국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 '내조의 여왕' 등을 방영한 것이 본격적 계기가 됐다. '내조의 여왕'은 시청자 호응도가 87.7%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들 드라마에 출연했던 윤상현이 2013년 11월 한국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자 가는 곳마다 팬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해적판' 형식으로 현지에서 전파된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주연배우 이민호가 높은 인기를 누린다고 한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한국문화클럽 회원들은 지난 3월, 1주년 기념행사로 아바나 시내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 춤을 추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한복은 70대 여성 회원이 인터넷 사진을 참고해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됐고 지금은 한국 문화와 음식, 역사에도 관심이 있다는 클럽 부회장 마갈리스 도밍게즈 산토스(여·변호사) 씨는 “한·쿠바 우정, 문화 교류에 힘쓰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회 쿠바 한국영화제가 개막한 5월 26일 아바나의 인판타 극장 앞에는 개막 두어 시간 전부터 쿠바 영화팬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영화제가 시작한 오후 8시, 극장의 200개 좌석은 순식간에 가득 들어찼고 쿠바의 명배우인 미르타 이바라

5. 6월 3일 한국 취재진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있는 '한국문화클럽' 사무실에서 만난 쿠바인 한류 팬들.
6. 아바나 '한국문화클럽'은 이민호·윤상현 등 한국 스타들의 사진과 드라마 '태양의 후예' 포스터 등이 벽을 한가득 채우고 있다.
7. 제3회 쿠바 한국영화제가 열린 5월 26일 아바나의 인판타 극장에 한국 영화를 보러 온 쿠바의 유명 배우 미르타 이바라.

(70)까지 극장을 찾아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특별 손님으로 쿠바를 찾은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BIFF) 위원장이 축사하고 오동진 영화평론가가 개막작인 이선균·조진웅 주연의 '끝까지 간다'에 대한 해설을 하자 관객들은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영화관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밝혀진 다음 첫 장면에서 차를 몰고 가는 이선균의 모습이 등장하자 객석에선 여성 팬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상영이 끝나고 제작진 소개 자막이 올라갈 때는 모두가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풍경까지 연출했다.

관객 레일라 델라오(25)는 “매우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이야기였다”며 “지나해 처음으로 한국의 한 전쟁 영화를 접했는데 무척 재밌게 본 터라 오늘 극장을 찾았고 역시 실망하지 않았다”고 웃었다. 쿠바 배우 이바라는 “한국 영화에 대해 잘 모르지만 훌륭한 작품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독특했고 즐거움이 매우 참신했다”고 평했다. **[장]**



딸과의 수업시간

이병준 캐나다 | 2015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우수상

이민자에게 영어란 풀어도 풀어도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도 같아 보인다. 그저 간신히 몸짓, 손짓 섞여 의사를 소통하는 수준의 영어에서부터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세련된 고급 영어까지 그 표현 방법 또한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적당히 섞어 쓰는 부사, 형용사가 말하는 사람의 격을 가늠케도 한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이민자의 나라다. 같은 라틴어의 뿌리를 둔 언어를 쓰는 동유럽 국가나 한때 미국,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필리핀, 인도, 홍콩 이민자들에게는 영어가 우리처럼 생소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들은 스펠링, 문법 제쳐 놓고 잘도 떠들어 댄다. 우리가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이상 배운 영어가 그들 길거리 영어만도 못하게 싶어 가끔 화가 나기도 하지만 입에 익지 않은 말을 하려니 문장을 머릿속에서 만들어 입 밖으로 내려고 궁리하는 동안 대화의 주제가 바뀌기 때문이다.

우리같이 나이 들어 이민 온 사람들에게야 고급, 저급 따질 것 없이 의사만 소통하면 그만이지만 그것도 그리 간단치가 않은 모양이다. 이민 온 지 50여 년이 다 되어 가건만 전화로 피자 한 판 주문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처럼 나이 들어 이민 온 사람들

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까닭 모르고 부모 손에 끌려 삶의 터를 옮긴 어린 학생들이 교실에서 영어 때문에 겪어야 할 처절한 노력은 정말 처절할 수밖에 없다.

23년 전 고국에서 14살로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적을 두었던 딸아이의 새 땅에서의 학창 생활은 영어와의 전쟁이었다. 새 땅에 터를 잡고 집 근처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자 아이가 곧잘 학교에 적응하는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방에서 얇은 얇은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아이가 책상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내가 가슴을 열어 보이자 와락 내게 쓰러지며 눈물을 쏟아대기 시작했다. 한참을 아이의 등을 쓸어주기 시작하자 몇 번 어깨를 들썩이다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이의 터진 입술 하며 눈물로 얼룩진 얼굴 위로 머리 카락이 엉켜 붙어 있었다. 아이의 책상 위를 살펴보니 두고 온 고국 친구들 사진 옆으로 '허클베리의 모험'이란 얇은 단행본 책이 펼쳐져 있었다. 지난 2주일을 그 책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Q&A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질문이 20여 개 정도 되었는데 예를 들면 '톰은 왜 계모에게 매를 맞았는가?' 하는 식이었다. 그러자니 그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는 20문제 답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나는 사전을 뒤져가며 50여 페이지쯤 되는 책을 읽어 내려갔다. ESL 학생들 수준의 영어책이라 쉬운 영어였겠지만 내겐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창밖이 밝아오고 대충 정리를 마칠 때쯤 아이가 침대에서 눈을 비비며 의아한 눈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내가 자기 숙제를 밤새워 해준 걸 알고 환하게 웃으며 내게 엄지손가락을 펴 보였다.

새 이민자들 대부분이 개인 교습을 받아가며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곤 하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한 무능한 부모로서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란 몸으로 때우는 길밖에 없었다.

그 숙제 사건 이후 아이는 내 실력을 과대평가하기 시





작했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게 물어 오곤 했다. 그러다 보니 날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딸을 실망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아이에게 다른 마땅한 대안도 없었다.

우리 가족은 당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는 틈틈이 아이의 책을 빌려 앞으로 배울 과제를 예습하고 아이에게 가르칠 방법을 연구했다. 영어로 된 책을 내가 자습해서 이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는 건 더 힘든 일이었다. 학년을 올라갈수록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만큼 내가 공부하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암기 과목이야 열심히 외우면 되었지만 문제는 영어와 수학이었다. 내게 힘이 부치는 문제는 가게를 들르는 손님들을 붙잡아 알아내곤 했다.

아이는 나와 함께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점수는 신통치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하는데 영어 중간고사 성적이 기대 이하라서 유급을 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다. 나는 영어선생과 약속을 잡고 학교 사무실로 찾았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 선생도 서두를 일이 아니며 유급을 권했다. 나는 남은 기간 딸아이의 성적 향상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겠노라 간절히 부탁했다. 나는 아이의 성적보다 유급으로 인해 상처받을 아이의 여린 감성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여선생도 내 뜻을 아는 듯 안쓰럽다는 듯 날 바라보며 한 가지 제안했다. 앞으로 남은 6개월간의 커리큘럼을 보여 줄 테니 준비 잘해서 2학기 점수를 올리면 생각해 보겠노라 했다.

그러겠노라 약속을 했지만 졸업반 영어란 게 역시 만만치 않았다. 환경, 시사, 취업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실무적인 과제는 그런대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켄키지의 ‘뿌르기 등지 위를 날아간 새 란 책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문체 자체가 난해했다. 생각 끝에 고국의 친구에게 부탁하여 한글 번역판을 배송받았다. 그 책을 다 읽어 줄거리를 이해한 다음 원서를 읽으니 쉽게 이해가 되었

다. 그리하여 독후감을 작성하고 질문에 답하여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이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나아갔다.

난생처음 하는 장사라는 게 몸에 익지도 않고 이런저런 속상한 일도 많은데 책 놓은 지 20년이 넘는 공부를 다시 한다는 게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었나 보다. 저녁 10시까지 내 자습 시간이고 그때부터 새벽까지 두 시까지가 아이의 가정 수업시간이었다. 어떤 때는 귀찮은 생각에 중간에 접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는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책과 필기도구를 들고 식탁에 자리를 틀고 날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를 등교시키고 출근을 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 왔다. 나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의사가 이런 지경까지 어떻게 참았느냐며 나를 수술실로 집어넣었다. 급성 맹장염이라 시간을 다루는 수술이라 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는 자기 공부 때문이라고 자책해했지만 난 그런 아이가 여간 기특하지 않았다. 사실 공부를 가르치며 난 답답한 맘에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많이 했었고 책도 집어 던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래도 이에 굴하지 않고 책을 들고 부모를 찾는 아이를 누구라서 내칠 수 있겠는가?

아이는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식 날, 아이는 내가 대학을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라 했지만 난 좋아 날뛰는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지난 어려웠던 기억이 되살아나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밀고 있었다.

30 중반의 나이를 지나는 아이의 가정 수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젠 학교 공부보다 더 소중한 인생 수업이다. 우린 책방을 뒤져 픽션, 논픽션 가리지 않고 책을 사서 돌려가며 읽고 독후감을 나눈다. 이젠 내가 아이에게 배우는 입장이 바뀌었지만 뒤뜰로 난 산책길을 따라 단풍나무 우거진 오솔길을 걸으며 아이와 함께하는 인생 수업시간이 내겐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장**

주철기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취임



7월 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주철기(좌측) 신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제8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7월 4일 취임했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주 신임 이사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주 이사장은 외시 6회로 1972년 외무부에 입부해 30년 넘게 직업외교관으로 일해 왔다. 2013년 3월부터 현 정부 첫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독립운동가 후손 등 고려인 초청 문화·역사 탐방

재외동포재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고려인 50여 명을 국내로 초청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고려인 동포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위로하고 한민족으로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강제이주·징용자 본인 또는 후손, 동포사회에 공적이 큰 유공 동포 및 모국 방문 경험에 없는 고령의 고려인 동포 등이다.

이들은 서울 경복궁,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등에서 고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서울 도심을 돌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경제 발전상도 돌아봤다.

6월 20일 서울에 도착한 방문단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로 열린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21일에는 서울에 있는 '한국의 집'을 방문해 한복을 입어보고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우리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천안 독립기념관과 망향의 동산을 방문해 헌화와 묵념으로 모국에 잠든 재외동포들의 영령을 추모했고, 22일에는 용인 민속촌에서 전통공연 관람과 문화 체험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후 서울에서 모국의 발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명소를 돌아보고 24일 소감발표회를 끝으로 모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고려인들은 일제 강점기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갔다가 중앙아시아로 흩어져 살면서도 특유의 성실함으로 현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소수민족으로 평가받는다"면서 "이들이 고국과 교류를 넓혀 한민족 정체성을 키우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CIS 지역 동포 초청사업에 참가한 50여명의 동포들은 6월 21일 '한국의 집'에서 모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모국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현지 다음 세대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으로 처음 모국을 찾은 우주 연구 전문가인 카자흐스탄의 김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63) 박사는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연수 소감을 밝혔다.

김 박사는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면 고려인, 한국인, 조선족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게 실감 난다"며 "원래 통일되면 오고 싶었지만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뤄서 영토가 넓어지고 국력이 키우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동포 전문가들 "조선족·고려인 비하 인식 개선 시급"

718만 명의 재외동포와 모국을 하나로 묶는 한민족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비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우길 선문대 교수는 6월 3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의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재

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2016 재외동포 전문가 포럼'에서 '조선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거주국에서 긍지를 갖고 말하던 조선족, 고려인이란 명칭이 모국에서 차별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조선족은 일제 강점기 항일 투쟁을 비롯해 한·중 관계의 진전 및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공헌하고 북한 개방을 이끄는 등 다양하게 모국에 기여해왔다"며 "그럼에도 60만 명이 넘는 재한조선족은 차별과 배제 탓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최근 전통적 거주지였던 중국 동북 3성에서의 이탈현상이 심각해 민족교육이 위기를 맞는 등 공동체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국가와 국경을 넘어서는 조선족의 움직임을 잘 활용하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교량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우병국 동덕여대 한중미래연구소 교수는 "재한조선족은 돈을 벌고 향인 중국 동북 3성으로 돌아가려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정주 지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조선족 네트워크의 축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립국가연합(CIS)과 러시아 지역 동포에 대해 발표한 황영삼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에서 고려인은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동포'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부분적인 속성"이라며 "150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면서 대부분 주류사회에 진출해 정치인, 기업가, 학자 등으로 활약하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체류 고려인 지원센터인 '너머'의

김호준 고문은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고려인은 3만 명으로 6년 전보다 5배 증가했다"며 "오랜 유랑 세월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모국에 정착하려는 이들을 따뜻하게 께안아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시아 한상·한인회장대회' 베트남서 개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2016 아시아한인회장대회 및 제11회 아시아한상대회'.

아시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상(韓商)과 한인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논하는 '2016 아시아한인회장대회 및 제11회 아시아한상대회'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다낭시 팜가든리조트에서 열렸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아시아한상연합회(겸임 회장 승은호)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인도, 대만 등 19개국 한인회의 전·현직 회장들과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22일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23일 한상대회와 한인회장대회 총회, 24일 산업시찰 일정으로 진행됐다.

한상대회에서는 한상 네트워크 발전방

향에 대한 토론과 조종용 중소기업중앙회 베트남사무소장과 다낭시 관계자 등이 베트남 경제와 다낭시를 소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렸다.

한인회장대회 총회에서는 이경철 베트남중부한인회 회장이 '베트남 중부한인회 소개 및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전체 토론을 벌였다.

재단, 한글학교 지원 위해 연세대와 MOU 체결



재단은 6월 22일 재단 회의실에서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재단은 6월 22일 재단 회의실에서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과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사이버 연수 과정을 운영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은 "한글학교 교사들은 각각 동포에게 모국어를 알리고 한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며 "이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포재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온라인 서점 예스24와도 각각 업무협약을 하고 동포 이민사 자료 발굴, 교육 콘텐츠 개발, 동포 대상 도서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

못생겨도 맛은 일품인 강화도 밴댕이 천대받던 신세에서 최고급 별미로 등극



고소하고 달콤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밴댕이는 서해와 남해 전역에서 잡히지만 강화도산을 으뜸으로 친다. ‘오뉴월 밴댕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쪽에서 해안을 따라 올라오는 밴댕이는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가 제철이다. 요즘은 워낙 저장기술이 좋아 꼭 제철이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다.

흔히 속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을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고 하지만, 밴댕이 맛의 여운은 은근하게 깊다. 밴댕이는 음력 5~6월 강화도 앞바다에서 잡힐 때 가장 맛이 좋다. 이 시기가 본격적인 산란기를 맞아 씨알이 굵고 기름기도 가장 많이 올라 있을 때다. 제철이 지나면 기름기가 빠지고 살이 물러져 맛은 좀 떨어진다. 청어과에 속하는 밴댕이의 몸길이는 15cm 정도로, 옆으로 납작하며 기늘고 길다. 커봤자 어른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될 뿐 아니라 희멀건 눈과 형편없는 몸매 등 외모도 별 볼 일 없다.

지방에 따라 ‘반댕이’, ‘빈징이’, ‘순댕이’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성질 또한 ‘지랄’ 맛다. 그물에 걸리는 순간, 제 성질에 못 이겨 죽어버린다. ‘밴댕이 소갈머리’도 여기서 나온 말로 어부들이 성질이 급한 밴댕이의 특성을 ‘속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 편협하

1, 2. 맛뿐 아니라 스테미너에도 좋은 밴댕이 회와 구이
3. 밴댕이 무침



4. 강화도 원조 뱀뎡이 횡집이 모여있는 선수 포구
5. 뱀뎡이를 파는 강화도 전통시장의 어물가게



고 쉽게 토라지는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성질 급한 뱀뎡이는 화나면 속이 녹아 죽는다'는 말처럼 물 밖으로 올라오면 숨을 헐떡이며 몸을 파르르 떨다가 곧바로 죽어버린다. 조선 영조 때 어의였던 유증림이 편찬한 '증보산림경제'에는 뱀뎡이의 '탕과 구이가 모두 맛있고 회를 만들면 웅어보다 낫다'고 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뱀뎡이는 뱀사람들만 회로 먹었을 뿐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생선이었다. 어부들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뱀뎡이를 잡지 않았고, 그물에 걸린 뱀뎡이는 젓갈을 담그거나 사료용으로 사용됐다. 뱀뎡이는 미식가들을 통해 그 고소한 맛이 널리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의 발길을 강화도로 불러 모으는 별미가 됐다.

생긴 것은 보잘것없지만 '혀끝에 와 닿는 감동'은 최고급 어종이나 다름없다. 뱀뎡이는 다른 생선에 비해 씹는 맛은 덜할지 몰라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특히 뱀뎡이젓은 그 맛이 미묘한 발효식품이다. 소금에 잘 삭혀진 뱀뎡이젓을 파, 마늘, 풋고추, 깨소금 같은 양념을 넣고 버무리면 밑반찬으로 그만이다. 강화도 화도면 선수포구(후포항)는 뱀뎡이 회 원조 격인 곳이다. 황해도 연백 사람들이 내려와 자리 잡은 곳으로 포구는 어머니 품처럼 푸근하다. 마니산 입구에서 3~4km 해변 쪽으로 가면 선수포구가 나오는데, 뱀뎡이를 취급하는 횡집만 20여 곳이나 된다. 뱀뎡이 살은 부드럽고 달아서 횡집으로 그만이다. 머리와 내장을 살짝 발라낸 뱀뎡이는 살 색이 하얗다. 붉은색이 감돌면 싱싱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보기만 해도 싱싱한 기운이 감도는 뱀뎡이 회는 된장이나 감칠맛 나는 초장을 찍은 뒤 고추나 마늘을 넣고 갯잎 등과 함께 싸먹으면 제격이다. 연하고 고소한 육질이 입속에서 사르르 녹아든다. 잠시 후 입안에서 단맛이 돌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복감이 빠져 든다.

뱀뎡이는 칼슘과 철분 성분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과 피부 미용에도 좋으며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성인병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여 그야말로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그리울 때, 석모도와 어울려 펼쳐지는 낙조가 보고 싶을 때, 입맛을 되찾을 수 있는 뱀뎡이 생각이 간절할 때 강화도로 미각여행을 떠나보자. **창**

▶ 석모도 보문사



강화도 서쪽 석모도를 가려면 외포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야 하지만 천년 고찰 보문사가 있어서 불자와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보문사는 예로부터 '강화 8경'에 드는 명승지로 낙가산(235m)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신라 선덕여왕 4년(635년) 회정 대사가 창건했으며 경내에 들어서면 석굴법당이 있고 그 뒤 벼랑에 관세음보살이 조성되어 있다. 절 뒷산에 올라 바라보는 서해의 낙조는 놓칠 수 없는 장관이다.

▶ 강화도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강화대교 → 평화전망대 → 고인돌 → 외포리 젓갈 시장 → 전등사 → 초지진
- 관광 안내
터미널 관광안내소(032-930-3515)
외포리 관광안내소(032-934-5565)
- 대중교통
시외버스(강화터미널-영등포, 신촌)
- 식당 정보
미락횡집(032-937-5098)
선수포구 뱀뎡이마을(032-937-6041)

재외동포재단, 전 세계 돌며 ‘전국노래자랑’ 연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 1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가 참가하는 ‘전국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한다.

동포재단은 9월에 개최하는 한민족 문화 축제인 ‘코리안 페스티벌’을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로 열기로 하고, 6월부터 각국을 돌며 예심을 치른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이전에는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전문 예술인이 공연을 선보였지만 올해는 ‘세계 한인의 날’ 1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일반인 동포가 참가해 노래 실력을 뽐내고 흥을 나누는 축제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심은 터키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 중국 옌지(延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국 뉴욕, 브라질 상파울루, 러시아 사할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독일 뒤셀도르



프,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 10곳의 한인회관 등에서 열린다.

예심이 열리지 않는 국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예심을 치를 예정이다.

예심에서 20여 개 팀을 추려 오는 9월 4일 국내에서 본심을 치르게 되며 진행은 방송인 송해 씨가 맡는다. TV 방송은 9월 15일 추석 특집으로 내보낸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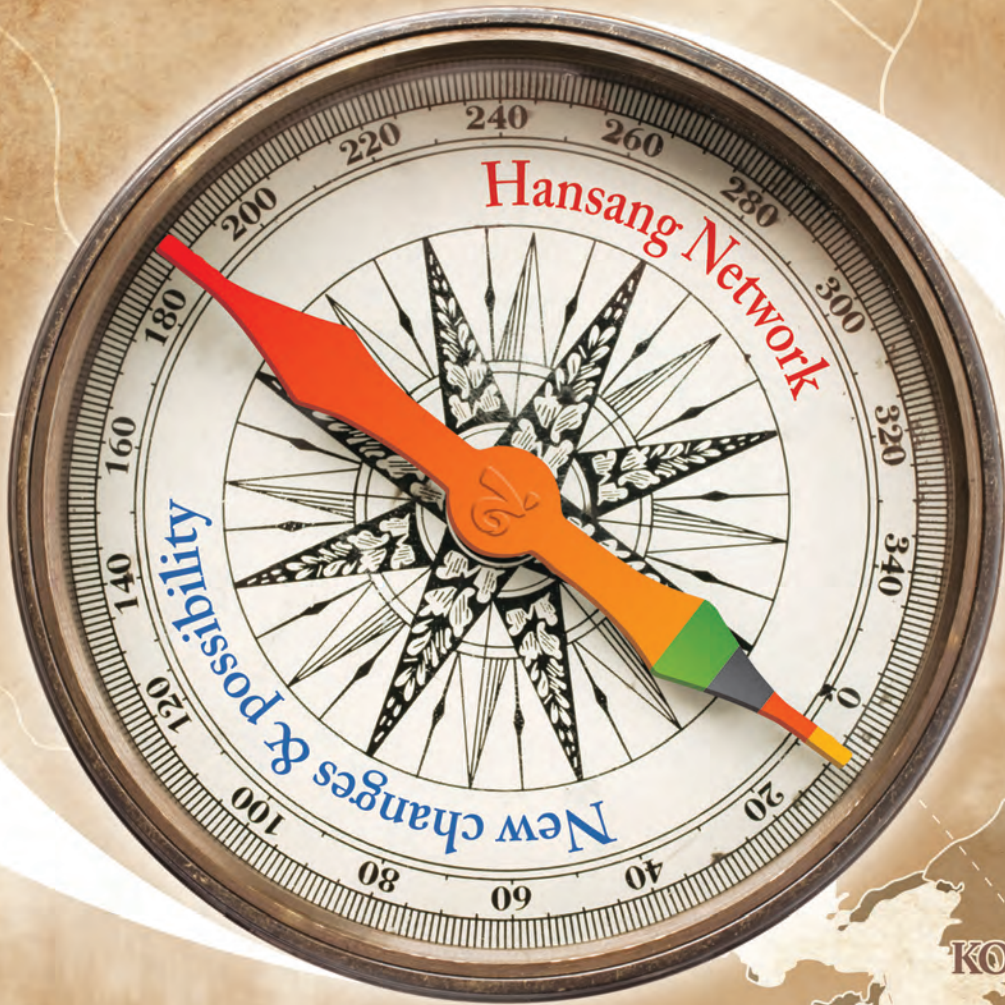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윈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새로운 변화와 도약, **한상 네트워크**
 New changes & Possibility, **Hansang Network**



THE 15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제15차**

세계한상대회

2016. 9. **27**화 ~ **29**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EUROPE
147,000

CIS
480,000

CANADA
224,000

USA
2,250,000

CHINA
2,590,000

JAPAN
856,000

MIDDLE EAST
26,000

AFRICA
12,000

SOUTHEAST ASIA
325,000

OCEANIA
185,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05,000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